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자녀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월 30일 (제113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기도한 것을 믿어라

사업을 하는 어느 장로가 사업이 승승장구 하자 다른 공장 부지를 찾아 나섰으며 내게 조언을 구했다. 나는 그와 함께 직접 부지를 보러 갔다. 부지를 돌아보다가 내게 문득 든 생각이 있어 그에게 말했다. “자네, 지금 사용하는 공장 부지를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그는 “당연히 기도 많이 했지요.”라고 했다. “이봐, 기도를 했으면 그걸 사야지, 왜 다른 곳을 보러 다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기도에도 부도 내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이라며 내게 감사했다.

좀 오래된 이야기다. 지방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주문한 고기가 나왔고, 나는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기가 연해서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앞에 있던 고기가 없어진 것 아닌가. 옆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그 고기가 질겨서 주인에게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하는 것이다. 나는 “그 고기 다시 가져와. 내가 이 고기가 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걸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야.” 했다. 그 고기를 다시 가져와서 먹는데 얼마나 연하고 맛있던지...

기도했으면 믿어야 한다. 실컷 기도해놓고 장애물을 만나면 ‘이게 아닌가?’ 하고 대부분 돌아간다. 주위 사람들이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가우똥하고 돌아간다. No!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장애물을 옮기실 것 아닌가. 홍해를 갈라 달라고 했으면 홍해 앞에 서있어야 홍해가 갈라질 것이 아니겠나. 기도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샘이 터지지 않겠는가.

왜 응답을 못 받는지 아는가? 기도해놓고 딴 짓을 하니까 그렇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주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스스로 꾀를 내어 다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부도내지 않으신다. 우리가 부도를 내고 있다. 기도에도 부도내지 말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사람이 개돼지 소리 들으면 되겠나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씻겨줘도 더러운 우리에 도로 눕는다. 그래서 한 짓 되하고 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개돼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행하던 최악된 일들을 예수를 알고 돌이켜 회개했다면 다시 그 죄구덩이에 들어가선 안 된다. 사실 개도 한번 심하게 혼꾸명나면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목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집에 있는 애완견이 하루는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쥐 잡는 끈끈이에 붙어서 움썽달짝 못하다 겨우 벗어난 일이 있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얘야! 사람이 개돼지 소리 들으면 되겠느냐.”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치셨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아, 일만 스승은 있되 아버지가 적다. 나는 너희를 해산의 수고함으로 나온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치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도 동일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해산의 수고함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

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려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기록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욕심을 좇아 구습을 벗지 못하니 그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라

봉우 이초석 목사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다

있었습니다. 자꾸 지하실로 내려갔다 오며 바닥을 더럽히기에 들어가자 말라고 몇 번을 야단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실에서 죽겠다고 깨갱 거리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 손자를 시켜 내려가 보라했더니 그 녀석이 쥐 잡겠다고 놓아둔 끈끈이에 붙어서 난리가 났던 거였습니다. 손자가 풀려줘서 살아난 그 녀석은 그 후로는 아예 지하실 입구조차 기웃거리지 않더군요. 개도 한 번 두들겨 맞은 곳은 다시 들어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회개와 죄 사함의 특권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일을 꾀하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면, 곧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최악된 일들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좀 하지 말고, 분 좀 내지 마라.’ 이는 의분(義憤)과는 다른 겁니다. 의분을 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혈기로 화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분을 내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악한 영들은 세상 사람들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

다. 내가 항상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니 마귀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충만이 떨어지면 옛 습성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분을 내고, 시기 질투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물마시듯 하며 개돼지처럼 한 짓 되하고 되합니다.

사람이 개돼지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기도에도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 및 수요일예배 대면예배 안내

접종완료자만으로 70% - 1체육관, 1차 및 비접종자는 30% - 2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민13:25~14:1~30)



부정의 말에 동의하지 말라

암에 걸린 집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방 가서 그 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 벽에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는 “시계가 보이는데요.”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저 넓은 하얀 벽은 안보입니까? 시계는 저 넓은 벽에 극히 일부분 아십니까? 암은 집사님 몸에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집사님 몸의 대부분은 아주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동의하지 마세요. 동의하는 순간 집사님은 무너집니다. 매일 ‘나는 낫는다. 나는 완치된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계속 긍정적인 말을 뿌리세요. 그러면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에 동의하면 부정이 임하고, 긍정에 동의하면 긍정이 내게 임합니다. 검정 물감을 뿌리면 내 옷에 검은색이 묻고, 빨간색을 뿌리면 빨간색이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40일간 정탐을 마친 그들의 평은 너무 달랐습니다. 똑같은 곳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거기 가면 다 잡혀 죽을 거라고요. 그러자 백성들은 곡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에 백성들이 동의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민14:2~3).

생사화복이 네 혀에 달려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먼저 부정을 퍼트린 자들부터 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민14:36~37).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있더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사십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찌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민14:32~34). 하와가 마귀의 부정적인 말에 동의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는 거야.”라는 마귀의 말에 하와가 동의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는 바람에 인류가 죄인이 된 것 아닙니까.

오래전, 우리 성도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때린다는 겁니다.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인 제공자는 바로 자신이었다고요. 그 성도가 조장인데, 자기 구역의 성도가 남편에게 자주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위로한

답시고 ‘남자들 다 그래. 우리 남편도 어쩔 땐 그러는 데

뭐.’라고 했답니 다. 그 후로 안 그러던 남편이 손찌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참 복받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귀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복이 많아.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이렇게 들리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차를 운전해주는 김충직 집사가 있습니다. 그와 지난주 김제의 전영수 장로가 오픈한 카페를 다녀오면서 그에게 이

런 말을 해줬습니다. “충직아, 절대 부정에 동의하지 마라. 네 가족이나 동료직원이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걸랑 거기에 동의하지 마라. 동의하면 부정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정이 네 삶을 덮게 될 거다.”

다들 김제에, 그것도 외지고 한적한 호수 앞 허허벌판에 카페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염려를 가장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왜 큰돈을 들여?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라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영수 장로는 그들의 말에 귀를 막고 기도하며 일을 추진하였

더니, 군에서 그곳까지 도로를 닦아줬고 그곳

이 별써 명소가 되었습니다.

왜 부정에 동의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이미 내 마음에 부정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어떻게 깨는 줄 압니까? 다이너마이트에 연결된 선에 불을 붙이면 불이 그 선을 타고 들어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바위를 깨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의 요소가 있으니 그것을 타고 상대의 부정이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합시다. 말이 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씨 속에 생명이 있듯 말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듯 좋은 말을 삶 속에 심어야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70이 넘게 살았어도 배추 심었는데 무를 거두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약3:12).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또 말은 누에가 뽑아내는 실과 같습니다. 어릴 때 누에고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뽑아내는 실로 자기 몸을 칭칭 감아서 그 안에 갇힌 것들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내 삶을 움짏달짝 못

하게 동여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인생은 말로 채색되는 예술이다

말은 ‘배의 키’와도 같습니다. 이는 야고보 선지자의 말입니다(약3:4~5).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웬만한 빌딩 크기보다 더 큰 배를 만듭니다. 그러나 수백 톤 혹은 수천 톤의 거대한 배라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도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희망의 나라로도 갈 수 있고, 절망의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강도들도 달렸는데,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으나,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23:42)라고 말해, 하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하나는 희망의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말은 이생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의 위력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세 치 밖에 안 되는 혀에서 생사화복이 납니다. 겨울철에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담뱃불 아닙니까? 툭 던진 작은 불 하나가 그 일대 산을 다 태우듯 세 치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일 뿐,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내 입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말은 마음이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5:22~23)로 가득하면 혀는 제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희망적인 말, 선한 말을 하고, 그 말에 동의합시다. 나쁜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맙시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됩니다(약3:2).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벧전3:10~11).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미래 위기에 대처하자

지난 12월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체결한 한시적 통화스와프계약이 예정대로 이달 31일 계약만 기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유인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위기 국면에서 외화자금조달이 급할 경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외화유동성위기를 해소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마비상태에 진입했을 때에도 통화스와프가 안정적인 환율유지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최근 미국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인상을 본격화하여 미국도 통화스와프에 대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연장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책당국자들은 외환보유액이 4,600억불 선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각종 지표도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 연준에서 현재와 같이 유동성 축소를 가속화할 경우 심각한 수준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2022년 세계경제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미국의 긴축, 그리고 중국의 경제둔화로 규정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자산가치의 붕괴, 그리고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채에 대한 상환불이행을 가장 큰 위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짧으면 수개월, 길면 18개월 이내에 심각한 유동성부족이 발생할 것이 너무나 확정적이고, 또한 지극히 상식적으로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비를 해야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 안정권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과 개선에 더 집중해야만 대한민국은 물론 개인도 생존이 가능한 무한경쟁시대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부채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가 및 구성원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각자도생의 길을 최대한 모색해야 하고 공공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매체들은 비난을 받더라도 지나치게 감성에만 자극하는 문화, 혹은 정치경제 평론 프로그램보다는 각자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보전달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다양한 위험변수를 다루어 오신 총회장 목사님의 노하우를 체득해야만 2022년뿐만이 아니라 도래예정인 환란을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임윤석

:: 세상을 보는 창 ::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행운은 시대와 상관없이 나라와 문화를 막론하고 세계 모든 사람의 염원이다. 그러나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골프 선수로서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게리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남아공에서 태어나 미국에 진출해 무려 160회 이상이나 우승한 선수이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체구가 작았다. 골프 선수로서는 키가 170cm, 몸무게가 66kg 정도밖에 되지 않은 왜소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그가 우승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이 그를 행운아라 불렀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다. “왜 당신에게 행운이 따른다고 생각하나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대답하기를 “예, 저는 행운아입니다. 선수로서 작은 덩치 때문에 연습을 더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운은 제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찾아오더군요.”라고 말했다. 자신의 불리한 조건도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그에게 행운을 불러온 것이다.

그렇다. 가만히 앉아서 오란다고 행운이 오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행운을 부르는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남모르는 노력으로 누군가를 감동하게 하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뉴턴은 자신의 집 실험실에서 연구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점심식사를 함께하자고 초대했던 동료 교수의 방문 사실을 잊고, 결국 손님 혼자 식사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 문득 시장기가 느껴져 달걀을 삶아 먹어야겠다 싶어 책을 읽으면서 달걀을 냄비 속에 넣고 삶았다. 얼마 후 ‘달걀이 적당히 삶아졌겠지.’ 하고 생각한 그는 비로소 책을 덮고 냄비뚜껑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냄비 속에서 펴펴 끓고 있는 것은 달걀 바로 옆에 두었던 회중시계였다. 달걀은 책상 위에 있었다. 물론 뉴턴은 회중시계를 집었을 때 손엔 잡힌 느낌이 달걀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 정도의 ‘집념전력’이 있었기에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업적도 만들었을 것이다.

올 한해 우리 교단의 표어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자!” 이다. 매사 반복과 열정으로 우리 모두 세계 모든 사람의 염원인 하나님의 행운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운은 노력하는 자의 친구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나는 물어볼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내가 정말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진심으로 전했느냐고

내 인생에 마지막 날이 온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내가 정말로~

내 잘못을 회개하고 너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했느냐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다
그리했노란 말을 듣고
감사의 기도로 인생을 마치길 원한다

그 후~
영원한 내 사랑 예수 품에 안기리라

朋友

:: 내가 매일 기쁘게 ::

사랑으로 가는 인내의 길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인내와 연결된다. 어려움을 참고 오래 견디며(인내忍耐), 정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선을 지키면(절제節制),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온유溫柔). 그러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양선良善, 자비慈悲), 그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희락喜樂), 화평하고 평온하며(화평和平), 사랑과 (충성忠誠)이 가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 곧 인내이다.

하지만 ‘인내’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다. 나 역시 인내와 오래 참음에는 아주 취약한 사람이었다. 화와 분노 참지 못해 별통을 차기 일쑤였고, 식탐을 참지 못해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며, 인고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공부의 끈을 쉬이 잡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이 참지 못하는 것인데, 이 참지 못하는 것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의 사람만큼이라도 인내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싶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눅21:19)는 말씀을 읽고 수없이 되뇌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지러운 생각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분노와 짜증,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 떠오를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로 그 감정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끝없는 식탐과 가짜 배고픔을 마주하며 허기인지 허전한 인지를 지켜보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마음 운동’이라고 이름 붙인 내 마음 들여다보기를 한지 이제 100일이 돼가고 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6:12)는 말씀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로 마음 다지기 운동을 계속했더니 지금은 두려움과 불안도, 분노와 짜증도 모두 저 멀리 밀려나며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이 가득해졌다. 더불어 끝없이 떠오르던 식탐과 가짜 배고픔이 잡히며 속이 비었을 때의 가벼움과 맑아지는 정신을 즐기는 때가 오기도 하였다.

인내와 오래 참음은 화평과 온유로 가는 지름길이며, 그 끝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넘침을 매일 매순간 깨닫는 시간이었다.

전훈지 집사

꿈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얼마 전 잠을 자다가 소름 끼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남편과 별일 아닌 일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며 언성을 높이자 남편 뒤쪽으로 겁정 갖을 쓴 저승사자가 쑥 하니 나타나서는 뒷모습을 보이며 서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너무 놀라 남편에게 뒤에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는 나도 쓰러졌다. 여전히 꿈속에서 눈을 떠보니 남편은 벽에 기대앉아서 자고 있었고, 남편이 안고 있던 둘째 아이는 토를 한 채로 잠들어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후 남편을 깨웠다. 남편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고 기도를 해준 후 목사님 귀신 쫓는 음성 파일을 틀어 다시 귀신을 쫓고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찾아 틀어주었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고 소름 끼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다들 때, 혈기 낼 때 귀신이 틈탄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 눈으로 시커먼 저승사자를 보니 더더욱 와 닿았다.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충돌이 생겨 언성이 높아지면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했다. “엄마 아빠, 싸워요?” 하고는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다투지 말고 언쟁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다가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언쟁을 하게 되었다. 다투고 나서 아이 앞에서 화해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꿈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다.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 혈기를 내면 안 된다. 시커먼 악한 것들이 틈을 노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인 모습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주셨

다. 그에게 딱 알맞은 짝, 곧 돕는 배필을 주셨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나누고 공유할 때 행복을 느끼게 만드셨다. 나의 삶을 나눌 수 있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배우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나의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다투며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 결혼하고 살다 보니 배려와 이해가 정말 필요하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듯이 나도 그를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그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며 도우며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꿈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사랑하며 살날도 모자라니 말이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Good News

사람들은 공짜나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선착순으로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려고 문이 열리자마자 몰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끝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회사의 공모주 청약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사람들이 몰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손에만 넣

으면 최소한 갑절 이상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신년에 로또복권의 당첨을 꿈꾸며 복권 명당 판매점에 늘어선 줄은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공짜나 일확천금은 좋아하면서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공짜라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는지 자꾸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은 세계 만민이 모두 다 구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의식중에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햇빛이나 공기,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는 한 번도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해왔습니다.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상화평 목사
sangwapyung@hanmail.net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영생에 이르는 길 ::

본을 보이는 신앙

어느 날, 갯벌에서 엄마게가 아들게를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애야, 걸을 때는 꼭 바로 걸어야지 자꾸 옆으로 걸어다니면 시야도 좋지 않고 위험하단다.” 그때 게를 잡아먹는 갈매기가 나타나자 게 모자는 후다닥 옆으로 걸어서 굴속에 숨었습니다. 우리는 저 아들 게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 다닐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없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가장 강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소위 ‘아빠찬스’라는 말이 많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취업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의 권세를 힘입어 경쟁자보다 손쉽게 성취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빠찬스’는 부모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보다 부모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

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5:19)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하기 전에 그 거울이 되는 아버지의 행하시는 바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사업의 어려움으로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또 반드시 역전시켜주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한 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한결같은 기도와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 기도, 아침 식사 후에 기도, 퇴근 무렵에 기도, 자기 전에 기도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옆에서 보기에든 존경스러울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그저 똑같이 행할 뿐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중심교회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회는 언제나 기도에 전무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늘 보고, 그분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이 되든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본이 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길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습관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 사업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신나게 자랑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계서 배운 것을 알며”(딤후3:14).

김대화
realdialog@naver.com

변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공유주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나 또한 고정비가 저렴한 매장에서 배달만을 집중공략하며 경제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있었다. 은근슬쩍 코로나 특수가 지속되길 바라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자 오랫동안 보기 힘들었던 단체 손님들이 매장 가득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인광고가 넘쳐났고 자영업자들 얼굴에 화색이 돌며 활기찬 모습들이 펼쳐졌다. 그와 동시에 나의 가게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잠시 확진자 수가 치솟아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했으나 미미한 영향만을 끼쳤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 액자 속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깊은 사색에 잠겼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 하셨는데...

즉시 수많은 부동산 매매를 검색했고, 뚝이 좋은 곳에 나를 위해 예비된 곳이 있으리란 믿음으로 며칠씩 발품을 팔았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다. 신축건물의 넓은 매장을 반 가격에 인수했다. 공실로 놔둘지언정 조율을 거부했던 임대인들과는 달리 프랜차이즈 식당을 몇 개 운영하면서 코로나 손실을 체했었던 분이라 흔쾌히 계약이 이루어졌다. 늘 확장 이전을 꿈꾸던 딸의 기도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신 것이다. 변화가 두려워 배달만을 고집했더라면 70%에 달하는 공유주방 폐업률처럼 스러져가는 안타까운 일이 나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요즘 방문등록 확인하라, 배달주문 접수하라, 바쁜 딸은 알바생을 구하자며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함을 감사드리며 더욱 신중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제공할 것을 매일 다짐해본다. 급변하는 세상이다.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도태된다. 변화는 생존하는 길이요, 성장을 위한 도전이다. 변화를 두려워 말자!

추성숙 집사

